축사 신발소독조 올바른 사용관리방법

Q

농장 내 차단방역을 위해서 신발 소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올바른 소독 방법은 무엇인가요?

▲ 신발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깊이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.

A 가축 질병 병원체 등 오염균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으려면 축산 농장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장화를 소독하기 전과 소독하고 난 후의 대장균 검출률을 분석한 결과, 오염된 장화를 한번 담갔다 뺀 경우에는 7.4%의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. 반면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걸음을 5회 실시한 후 뺐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합니다.

① 작업자는 신발 소독조에 장화를 담그고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장화가 소독액에 충분히 잠기게 해 오염균을 제거합니다.

② 장화가 분변 등 유기물로 오염된 경우(대장균 오염도가 50x106/㎖ 이상인 경우)에는 미리 물로 깨끗이 씻어 낸 다음 신발 소독조에 담가야 합니다.

③ 소독제를 희석할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적정 배율을 잘 지켜야 합니다. 4도(℃)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희석배율을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고농도 기준으로 맞춥니다.

④ 소독액은 2~3일 간격으로 바꿉니다. 희석된 소독액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교체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희석해서 사용합니다.

출처 : 농촌진흥청